

[목회자 모임-히브리서]

4. 이 큰 구원

(2) 찾아오신 하나님

2018. 7. 13. 이현래 목사님

지난번에 히브리서 2장에서 <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써 그들과 증언하셨느니라(히2:3,4).”는 말씀이 있다.

이 큰 구원을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아들로 오신 구원이다. 여러 가지로 말씀 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들로 오셨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었지만 아들로 오신 것은 그분이 바로 오신 것이다. 이 구원이 큰 구원이라는 뜻이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등한히 여기면 화를 받았는데, 하물며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환란을 피하겠느냐는 말이다.

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한다.

아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가장 완전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사람이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찾아오셨다는 말이다. 우리가 눈 떠서 보니까 창조가 이미 있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를 원하거나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기 전에 이미 창조가 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에 왔다는 말이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1:2).”고 되어있다. 하나님이 왔다는 말이다. “빛이 있으라(창1:3).”도 하나님이 왔다는 말이다.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땅이 묻혀 있으니 물이 갈라지라는 것도 하나님이 왔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이러 이렇게 하자는 것도 하나님이 왔다는 말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 생각 속에 없는 일이다.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겠는가? 사

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종교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인간의 개념에 없는 분인데 어떻게 찾겠는가? 창조로 찾아오신 분이고, 또 우리를 위임하신다는 말은 찾아오셨다는 말이다.

하나님, 내가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과 하나님이 와서 이러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주 다른 말이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한 말이다. 그래서 길이 서로 어긋나서 다른 길이 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지, 아브라함이 내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묻은 일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일도 없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왔다는 말이다. 오기 전에는 모른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다.

나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찾다가 실패했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몇 년 간을 방황했다. 그런데 모르겠더라. 어릴 때는 무심코 교회를 나갔는데 중간에 청년기가 되면서 의심이 생겼다. 하나님이 있는가부터 의심이 생겼다.

하나님이 있는가 하고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도 누가 나에게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책을 봐도 모르겠고 결국은 몇 년 간 그런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너를 지었다고 찾아오셨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밖에 몰랐다. 나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몰랐다. 하나님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었다는 이 말씀이 왔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다음에 내 고향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꼭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었지만 떠날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떠날 생각을 하겠는가?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보지 못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도 살아났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직접 검사를 했는데 두 달간 누워있으면서 아무 약도 쓰지 못했다. 왜냐하면 집에서 쓸 수 있는 약을 다 써버렸다. 약을 쓸 수 없다고 했다.

두 달 후에 기침이 좀 그쳐서 검사를 했는데 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 약도 쓰지 않았는데 균이 없어지니까 병원에서도 의심스러워서 두 번 검사하고 세 번 검사를 했다.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생각이 없어서 해보지 못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몰랐다. 병 치료 종결 선언을 받고 퇴원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살아났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만일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죽을병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또 찾겠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내가 신학교를 가기 직전에 그 친구가 말해주어서 그때서야 알았다. 너는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그 말을 듣는데, 그랬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치고는 이상하다. 배경을 보면 내가 다니던 교회는 자유주의적인 교회였다. 기도도 없었던 교회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때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결핵균이 그렇게 없어질 수가 없다. 결핵균이라는 균이 아무 약도 쓰지 않았는데 없어졌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요즘 다시 결핵이 퍼지고 있는데, 균을 없애려면 최소한도 1년은 약을 먹어야 한다. 그 균이 어떻게 그냥 없어지겠는가?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헤맸을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로는 내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부르심이 있었다. 그 부르심이 있는 후로도 굶이굽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내가 찾아간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정말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4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나를 살려달라거나 나를 빼달라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한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적시적소에 그때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뽑아내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왔다. 한 번도 이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온 일이 하나도 없다.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길로 왔다.

나는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 확신하고 있다. 자기가 필요하면 찾아오신다.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지는가? 찾을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겠는가? 말이 안 된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일이 없다. 그것도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우르를 출발해서 하란까지 왔는데 거기서 아버지 죽고 나니까 그 말씀이 들렸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후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성공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다.

사람이 맨 처음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가인과 아벨이다.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누가 가르쳐주어서 왔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고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왔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극이 벌어졌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찾은 종교가 충돌하고 있다. 내가 찾은 종교와 다른 사람이 찾은 종교가 충돌하고 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인과 아벨의 역사는 오늘 종교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종교의 실체이다.

왜 서로 싸우는가? 모두 자기가 찾은 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침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

이삭을 낳을 때도 역시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했고, 사라의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되어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구한 바도 없다는 뜻이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보면 이삭은 우물을 팠다가 뺏기고 팠다가 뺏긴 역사이다. 그 우물은 누구 우물인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인데 쓰지 않던 우물을 이삭이 수리해서 썼

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또 뺏기고 할 수 없이 가는데, 갈수록 창대해지더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삭은 그럴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다.

이것을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삭은 너무 곱게 자라고 복을 많이 받아서 연단을 받지 않은 결과로 해서 모르고 축복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모르고 축복을 했는데 진짜 축복을 한 것이다. 신기한 일이다.

만일 이삭이 똑똑해서 자기 생각대로 에서를 축복했더라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멍청했는지 눈이 어두워서 그랬는지 좌우간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에는 맞는 축복이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가도 하나님 일을 했고, 저렇게 가도 하나님 일을 한 셈이다. 인간이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이다. 눈이 어두웠으니까 축복을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은 에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 있었다.

나는 내 삶에서 보았다. 내가 4년 동안 싸울 때 나도 잘못된 것이 있다. 처음에는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싸우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생긴다. 나도 그에 대한 상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분들은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났다.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났다.

그런데 나는 점점 창대해졌다. 나도 잘못했는데 왜 나는 창대하는가? 그 사람들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망하고 나는 창대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할 때 벌을 주시고, 이러이러할 때는 상을 주신다는 원칙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시면 하시고, 하고자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이상한 말 같지만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자기가 한 것은 아니다.**

야곱도 그렇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야곱은 기도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압박감을 견디지 않고 혼자 남았던 사람이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교활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필 찾아오셨다. 좋은 사람을 많이 놔두고 그 사람을 찾아오셨는지 모른다.

그리고 야곱은 환도 뼈를 꺾일 때까지 자기를 꺾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결코 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환도 뼈를 꺾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찾아 오셨다. 숙곳에서도 찾아오시고 베엘에서도 찾아오시고 계속 찾아오셨다.

숙곳에서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한 다음에 큰 사건이 발생했다.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때 처음으로 내 환란의 날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로 가자는 말을 한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올라가자고 했다. 이것이 처음 한 말이다. 돌베개를 베고 자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했다.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다.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이 내가 객지에서 무사히 잘 돌아오게 되면 나는 여기에 주의 전을 지을 것이고, 내 소득의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서언을 하고 간 사람이다.

그런데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서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거기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거기로 돌아오게 되었다. 야곱이 선택한 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선택해 준 길이었다.

지금 내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그렇다. 내가 한 번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다. 그분이 계속 쫓아다니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이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세가 또 마찬가지로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일이 없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완전히 인생은 망가지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왔다. 가시나무 불꽃 중에서 모세를 찾아오셨다.

모세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성막을 얻어오게 되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서 하나님을 만난 곳은 너무 무서운 곳이어서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 누가 여기를 오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을 만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성막을 준 것이다.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으로 오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집이 땅으로 옮겨졌으니 사람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다. 땅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분이 땅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늘에 올라가겠는가?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있겠는가?

성막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큰 은혜이다. 나를 만나려거든 이리로 오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주 당연하게 쉽게 성막을 찾아갔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었고 제도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해 가게 되었다.

율법도 마찬가지였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퇴색해서 계명이 되고 말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변질을 시켰다. 성막도 변질시키고, 율법도 변질시켰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셨다. **“내 법을 그들의(저희) 생각에 두고 그들의(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히8:10).”**는 것은 그분이 오시겠다는 말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겠다. 너희 생명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이다. 밖으로 와서는 안 되겠고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말은 예레미야 31장 예언의 성취이다. 내가 너희 생명 속에 있겠다는 이 약속에 대한 성취이다.

지금까지 사람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결정판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지만 이제 예수로 왔다는 말은 그 찾아오신 전체를 포함하는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안에 지금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두 들어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삭을 찾은 하나님, 야곱을 찾은 하나님, 모세를 찾은 하나님이 모두 예수 안에 와있다.

이것을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1:14).”**라고 말하게 된다.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를 가리켜서 구속의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구원의 창시자라는 뜻이다. 사실은 전부터 있었지만 결정판이 나왔다는 말이다.

구원의 주, 구속의 주, 또 사도들을 불러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구속을 성취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계시가 나온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오셔서 한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소원한 일이 아니다. 또 그것을 소원할 수가 없다.

이것을 알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것은 사람이 전혀 모르는 일이다. 바울이 말한 대로 본 일도 없고 생각한 일도 없고 깨달은 일도 없다고 한다. 전혀 모르던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우리가 전혀 모르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자기가 필요하니까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다. 자기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것이 우상이다.

복음이 희랍세계에 들어왔다. 희랍 세계는 아주 이성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다신교적인 세계이다. 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 하나님을 찾는다. 희랍 세계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각기 자기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을 정리하려고 교리를 만들었다. 그 교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찾아갈 방법이 있는가? 그러므로 각자 자기 하나님을 만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면 그것이 우상이다.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모두 우상이다.

찾아오신 분만 우상이 아니다. 내가 만든 것은 모두 우상이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거나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한다. 하나님은 절대자다. 아니면 하나님은 근원자다. 아니면 제 1 원리이다. 모든 신중에 뛰어나다. 이것은 모두 추상적인 말이고 관념적인 말이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상이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우상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절대자라거나 제일원리라거나 근원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라. 그 사람과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우상이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위임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시다. 처음부터 그랬다.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하시고 위임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계시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면 우리 인격을 채우게 된다. 우리는 인격을 채운다는 개념이 없다. 내가 빛나갔다는 개념이 없다. 이탈했다고 하면 어디로 이탈했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탈했다는 개념이 없다.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인간적인 죄다. 사람이 살면서 저지른 그런 죄를 가르켜 말한 것이다. 그래서 맨날 회개해도 똑같다. 다시 그 자리이고 다시 그 자리이다. 내가 어디서 죄를 졌는지를 모른

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죄인가? 그리고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지만 원죄를 내가 언제 졌느냐는 것이다. 나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내가 언제 원죄를 졌는지를 모르겠다. 사실은 그 원죄 자체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된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았다. 고민을 많이 했다.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다.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몰랐다. 나를 지으신 것은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내게 위임을 했다는 말은 찾아왔다는 말이다. 전부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길이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성취가 된다. 우리 인격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축복하신 모든 축복이 성취가 된다.

이것은 인격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격의 완성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 축복이 성취될 수가 도저히 없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철학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토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토론을 해서 알 수가 없다.

세상 학문은 토론을 하면 알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토론을 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찾아오시지 않으면 모른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거부한다. 이것이 문제이다. 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할까? 자기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 거부한다. 자기 하나님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하나님이 걸리적거린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고전1:23).” 내 하나님이 있으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내가 잘 아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낯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는가?

이제 예수께서 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결정적으로 찾아오셨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찾아오시니까 죽여버렸다. 예수님이 비유할 때 하신 것처럼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욕해서 또 보냈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 영접하리라 하고 보냈더니 상속자는 죽이자 하여 죽였다는 비유를 하셨다.

내 하나님을 건드리니까 죽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 하나님을 건드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받아들이지 않고, 오시지 않는 하나님

을 찾아다닌다. 없는 하나님을 찾아다닌다.

평생 하나님 찾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이 많다. 또 교회에 있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오시는 하나님은 놔두고, 오시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

오시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수로 알겠는가? 오시는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오시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수로 알겠는가?

나는 이렇게 쉬운 데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 제일 쉽게 오신 분이 예수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모두 어렵다. 모세의 하나님을 소개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로 오시니까 죽여 버렸다.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쉬운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오신 분을 거절하면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나겠는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우리가 피하겠는가? 이보다 더 큰 구원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도 또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나와 다른 예수를 소개 받았다. 물위로 걸어간 예수, 어려서부터 계속 들었다. 나에게 쉬운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어려운 하나님이 되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

내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점점점점 그분과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알수록 점점 멀어진다. 마지막에 해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내놓은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적을 보여주어도 안 되니까 이적을 보여주면 다 믿을 줄 알았더니 엉뚱한 것만 믿으니까 십자가가 생겼다. 그렇지 않았으면 십자가까지 갈 필요가 없다. 모두 그분 자신을 영접했으면 굳이 십자가까지 갈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그랬다. 가깝게는 예수를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점점점점 무엇을 따랐는가? 그분이 행하신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할 수 없는가? 병자를 고치신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선생님은 그렇게 병을 고치시는데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하느냐고 묻은 적이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마17:20).**”고 말씀하셨다. 거꾸로 하면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면 도대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가? 딱 벽에 부딪친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싶다.

너희는 왜 다른 것을 찾고 있느냐, 왜 헛것을 찾고 있느냐는 말이다. 따라 다닌 제자들이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겠는가?

나도 목회하러 나가서 비로소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목회를 나가보니 핑 잡는 것이 매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을 잘 알고 못 알고는 문제가 아니고 핑 잡는 것이 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능력을 추구하느라고 대단한 사람을 쫓아다녔다.

찾아보려고 구해보려고 삼각산에 여러 번 갔다. 그런데 역시 능력 없는 사람은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결국은 못하고 말았다. 만일 그때 능력을 조금이라도 받았더라면 완전히 망할 뻔했다. 그것을 가지고 써먹었을 것이다. 아무 능력도 받지 못한 것이 지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인지 주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예수를 알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된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된다. 옆에서 도전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이 큰 구원을 모르고 헛눈 팔고 있는 것이다. 아들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헛눈 팔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찾아오신 하나님의 결정판이다. 더 이상 가까이 찾아올 수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그것을 보게 된다.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분이 거기에 전시되었다.

누가 나에게 그만큼 더 가까이 오겠는가? 뛰어내릴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가깝게 누가 나에게 오겠는가? 나는 거기서 만일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만나겠는가?

나는 이것이 최종적인 계시라고 생각한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지막 판이다. 이보다 더 가깝게 찾아올 방법은 없다. 나와 그가 딱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자리 이니까 이보다 더 가깝게 오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는가?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겠는가?

우리는 지금 너무 복된 시대에 와 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시대에 와 있다. 그냥 있기만 하는 시대에, 보기만하면 되는 시대에 와 있다. 둘이 하나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보기만 하면 된다. 내 속에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속에 내가 있는 바로 그 사람 안에서 서로 만나니까 완전한 만남이다.

이것을 거부하고 나면 각자 자기 하나님을 또 찾는다. 그래서 희랍인들의 하나님이 된다. 희랍인들의 그 많은 하나님이 된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톨리히를 놓고 토론을 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기독교 하나님의 신관이 우상숭배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사람인 것 같다. 그것을 지방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말끔히 청소를 해버렸다.

그분의 눈으로 볼 때 기독교 신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잘 본 것이다. 무허가 건축이다. 다 때려 부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다음에 어떤 신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지 때려 부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서울에 가니까 인왕산 꼭대기까지 판자촌이 들어섰다. 4.19이후에 무법천지가 되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산을 깎아서 판자촌을 지었다. 엉망이었다. 내가 있었던 교회가 그 경계선에 있었다. 동네와 판자촌의 경계에 있어서 사정을 잘 안다. 정말 엉망이었다.

그것을 청소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집을 지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지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철거를 했다. 지어준 아파트가 8평 아파트이다. 그것도 그때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 작은 방 2칸에 들어가는 입구에 부엌이 있고 화장실은 공동화장실 아파트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다. 지금은 다 허물고 다시 지었다.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 우상, 맞지 않는 신관을 톨리히가 싹 정리를 해주었다.

대책은 집을 지어야 된다. 청소는 보여주었는데 집을 보여준 것 같지는 않다. 집은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구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모세가 산에서 식양을 본 대로 그대로 땅에 지었다고 했다.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의 식양을 따서 성막을 지었다고 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모두 우상이다.

찾아오신 분만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 큰 구원은 찾아오셨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이다. 이 한 사람이 복음이다. 그분이 가르친 것도 있지만 가르친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복음이다. 공자님도 그렇고 석가님도 그렇고 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니까 그분들은 없어도 된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만 따라서는 안 된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분 자신을 전해야 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물며 교리나 지식을 가르쳐서 사람이 바뀌어지겠는가?

예수 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다. 하나님도 시작하시고 위임하시고 성취하셨다. 예수님도 시작하시고 위임하고 성취하셨다. 꼭 같다. 재창조이다. 재창조의 주인이고, 구속의 창시자이고, 또 구속의 위임자이다. 그리고 또 구속의 성취자이다.

우리는 이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분의 가르침으로는 안 된다. 그분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분과 내가 연합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못 박힌 그 길이다.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예수와 하나 될 자리가 없다. 그리고 그분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공유할 수 없다. 그가 하늘에 오르면 우리도 하늘에 오르고, 그가 지옥에 가면 우리도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천당을 따로 가려는 사람이 말이 되겠는가? 그분 따로 천당이라는 것은 없다. 그분 따로 천국이라는 것도 없다. 그분 따로 하나님 나라도 없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한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가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찾아오시면 알 수 있도록 오신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걱정하면 그 아이가 알 때까지 가르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알 때까지 찾아오신다.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알 때까지 보여주실 것이다. 마지막까지 보여주셨다. 죽음의 자리에 가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평생 나를 찾아오신 이 주님을 증거하려고 한다.

감사합니다.